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54호 1판 (음력 9월 3일)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현대차 광주공장 투자 10월이 '골든타임'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불참 난항
10월 넘기면 신차개발 일정 차질
투자 약속 이행 장담할 수 없어
군산 등 타지역 적극 구애도 변수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함께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지역노동계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을 넘기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계획보다 공장 설립이 늦어지면서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의 투자 약속 이행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이상배 전략산업국장은 "현대자 광주공장 설립은 10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면서 "10월을 넘기게 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투자에 따른 비용이 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10월말이 사실상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면서 "현대차는 신차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 결국 광주 완성차 공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참을 선언한 지역 노동계의 '연봉 2100만원' 주장에 대해서 이 국장은 "노동계가 현대차 광주투자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지난달 19일 공교롭게도 시가 현대차와 기본적 노동조건에 합의했다"면서 "합의 내용은 큰 틀에서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또 현대 측은 연간 최소 7만대 판매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빨갛게 노랗게 물 들었네 광주·전남지역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임금은 호봉제가 아닌 직무직능제와 성과금 체제로, 지속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량증가로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근무가 아닌 인력 충원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뒤 지난 6월 19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참석 행사가 결국 무산됐고, 최근 지역 노동계의 노사민정 불참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관심도 크게 줄었다고 이 국장은 소개했다. 실제, 최근 군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구, 구미, 군산 등 다른 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전체 의원명의로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이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합작공장은 광주경제와 청년일자리의 숨통을 틔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서 "광주시는 모든 협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노동계는 지역 발전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새로운 대화 국면을 만드는데 다시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고 등 13개 광주 직업계고 교장단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와 관련 기관과 단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MB 청와대가 막았다

조직적 제창 저지 자료 확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보수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과 자료도 확보됐다.

10일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5·18 기념식 파행과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문건을 확보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적은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으라는 지시로 분석된다.

이에 당시 국가보훈처는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친북 성향의 노래를 주먹을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보훈단체들의 주장을 내세워 국민 통합의 명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시켰다. 또, 보훈처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별도의 5·18 기념곡을 제정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각종 꼼수를 쓰기도 했다. 재발방지위 관계자는 또, 보훈처가 일부 보훈단체들을 동원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데에도 간여한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1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중간 조사 결과와 물증을 함께 공개한다. 재발방지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위가 연말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받고 누구에게 보고 했는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밝혀낼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이건 음악회' 초대권 무료 배포

'클래식계 히어로'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라다글리치 초청 공연
24일 오후 8시 5·18 문화센터
15일부터 광주일보사 선착순 배부

밀로쉬 카라다글리치

광주일보사는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는 제29회 '이건 음악회' 초청권을 독자 여러분에게 무료로 증정합니다. 〈관련기사 16면〉

이건 음악회는 문화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이건홀딩스, 이건산업㈜, ㈜이건창호 등 이건(EAGON)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민들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입니다.

올해는 '클래식계 히어로'라 불리는 몬테네그로 출신의 젊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라다글리치(10월24일 오후 8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를 초대해 공연을 진행합니다.

밀로쉬는 이번 연주회에서 바흐, 호아킨 로드리고, 아스트로 피아졸라, 존 레논의 명곡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등 현악 연주자들과 협연 무대도 마련합니다.

관람권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국에서 무료(1인 2매)로 선착순 배부합니다. 문의 062-220-0525.

산업단지 입주업체·고용인원 지역 불균형 심각

관리 면적 가장 넓은 전남
생산 11.8%·고용 3.4% 그쳐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고용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194개로, 관리면적만 서울시 면적의 2배 가량인 1,20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산업단지 관리면적이 228㎢(18.9%)로 가장 넓고, 이어 ▲경북 138㎢(11.5%) ▲경남 124㎢(10.3%) ▲경기 122㎢(10.1%)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세귀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16만여명, 올해 누계생산액은 약 531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인원의 20.5%와 누계생산액의 20.47%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단지 관리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의 경우 전국 산업단지 누계 생산액의 11.8%, 고용의 3.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총 105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전남의 입주 기업은 2856개이며, 이 가운데 가동업체는 2409개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고용인원은 7만3308명이고, 누계생산액은 62조8000억원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의 지역별 격차가 고용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